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임형재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일본한국어교육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한국어교육학회의 2023년 특별 국제학술대회이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35차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의 관서·관동지역 재일본한글학교연합회와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한국어교육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과 나고야 총영사관의 김성수 총영사님,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를 위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를 보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일본의 한국어 교육, 그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규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한국어 교육 정책의 흐름과 교원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국어원 정희원 실장님의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준비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분과에는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주제를 비롯해서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과 일·한 통번역 연구, 한국어 교육 정책, 한국어 교재개발 연구 등의 분과가 마련되어, K-Teacher 기획 분과를 포함, 모두 10개 분과에 35명의 연구자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학술대회 행사로 준비해주신, 두 학회의 임원들과 준비 위원회 분들의 지난 6개월 동안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어 교사 교육을 주제로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일본 한국어교육학회 문희진 회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일본 관서지역 한글학교연합회 이은숙 회장님과, 관동지역 한글학교연합회 서명환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나고야에 모여,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두 나라의 한국어 교육 발전의 작은 발자국으로 여러분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임형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문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및 일본한국어교육학회의 특별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일본한국어교육학회 임원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학회가 MOU체결후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단히 뜻 깊은 국제 학술대회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열성으로 준비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본한국어교육학회의 임원 및 회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를 빛내주실 내외 귀빈 여러분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김성수 총영사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정희원 실장님, 전류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교수님, 관동지역 재일본한글학교연합회 서명환 회장님, 관서지역 재일본한글학교연합회 이은숙 회장님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고 또한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해 주신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자율화 되고난 이후 즉 에프터코로나 시대하에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어교육 연구자분들이 일본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에 계신 한국어 교육자여러분이 전세계적으로 일본이 한국어 교육기관과 학습자가 제일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방향과 교육자들이 가진 문제등을 토론하며 파악함으로써 양국의 교육자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공헌 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특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한국어교육과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문희진

축 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및 일본한국어교육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가 나고야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 일본한국어교육학회 문희진 회장님을 비롯하여 금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K-POP, 영화, 드라마, 음식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아울러, 일본 지역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정착한 재일동포 분들의 한국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각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더 많은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나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교류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금번 학술 대회가 해외 한국어 교사 육성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관련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일본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김성수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5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원 양성을 지원하고자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인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일본한국어교육학회를 비롯하여, 재일본한글학교 관서지역협의회, 재일본한글학교 관동지역협의회 등이 함께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큼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본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일본 지역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 교육 현장의 지원 및 실천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K-티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사 지원 방안,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5차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해외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5개국 47명의 한국어 연구진들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한 토론의 자리에 모이게 되어 더욱 반갑고 의미가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교류의 장을 열어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를 비롯한 일본한국어교육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국어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세종학당 선생님을 통해서 학습자가 판소리 소리꾼이 되고 경기민요 전수자가 되며, 교수가 되고 미래의 국제 교류 전문가를 꿈꾸게 되는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어 교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우리 연구자들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가 됩니다.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효율적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한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교원연수센터를 통해 실제 교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워크숍이나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사들이 최신 교수법을 습득하고, 서로의 교육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실시해온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덕분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능숙한 교원으로 활동하는 세종학당 교원 비율이 작년에도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원 양성과 재교육에 힘써온 세종학당재단은 교원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함께, 해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 35차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회장님과 학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